

「제주연구원-퍼시픽 포럼 MOU 체결 및 관계기관 향후 추진 과제 협의」출장결과 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미국 하와이주 기반의 정책 연구 기관과의 MOU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이익 실현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하와이대학 동서연구센터 및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소속 전문가 면담 시행을 통해 향후 연구분야 확장 및 향후 추진과제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와 최초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미국 하와이주(1986년 11월 25일) 정부 및 의회 방문을 통해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출장기간

- 2024년 4월 7일 ~ 2024년 4월 14일

□ 출장국가

- 미국 하와이주(오아후 섬)

□ 출장자

- 제주연구원 : 양덕순 원장, 강진영 정책연구실장, 허문정 도정연구관, 김재균 전문연구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청 :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이환준 주무관

□ 주요내용(일정)

일 자	방문국	주요일정
4.7.(일)	한 국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출발(16:00)→김포 도착(17:00) • 인천 출발(21:05)→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도착(10:35)
4.8.(월)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대학 동서연구소장(East West Center) 면담 • 미국 하와이 Pacific Forum International MOU 체결
4.9.(화)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전문가(Jennie Jin 박사 등) 간담회 및 진주만 국립기념관 현장 답사
4.10.(수)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하와이 정부(State Capitol) 방문 - 하와이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Sylvia Luke) 예방
4.11.(목)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하와이 주의회(House of Representative) 방문 - 미국 하와이주 하원의원 Sam Kong 예방 • 주하와이 총영사 예방
4.12.(금)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공공투자사업 현장 답사 (호놀룰루 항만, 알로하 타워 등) • 쿠알로아 랜치 및 하와이 하나우마만 자연보호구역 등 현장 답사
4.13.(토)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출발(12:35)
4.14(일)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도착(17:45, +1일) • 김포 출발(20:00)→제주 도착(21:00)

II

출장 결과

1. 미국 하와이 Pacific Forum International MOU 체결

□ 장 소

- 명칭 : Pacific Forum International
- 위치 : 1003 Bishop Street, Pauahi Tower Suite 1150, Honolulu, HI

□ 참 석 자 : David Santoro(원장, President & CEO)

Robert York(부장, Director for Regional Affairs)

Shanna Khayat(팀장, Communications and Outreach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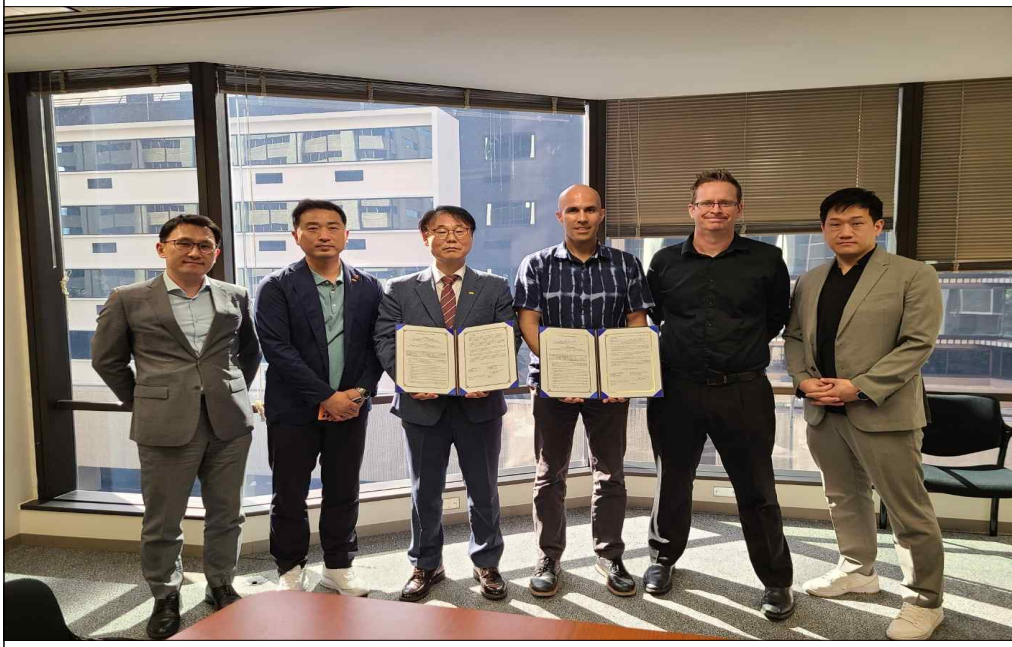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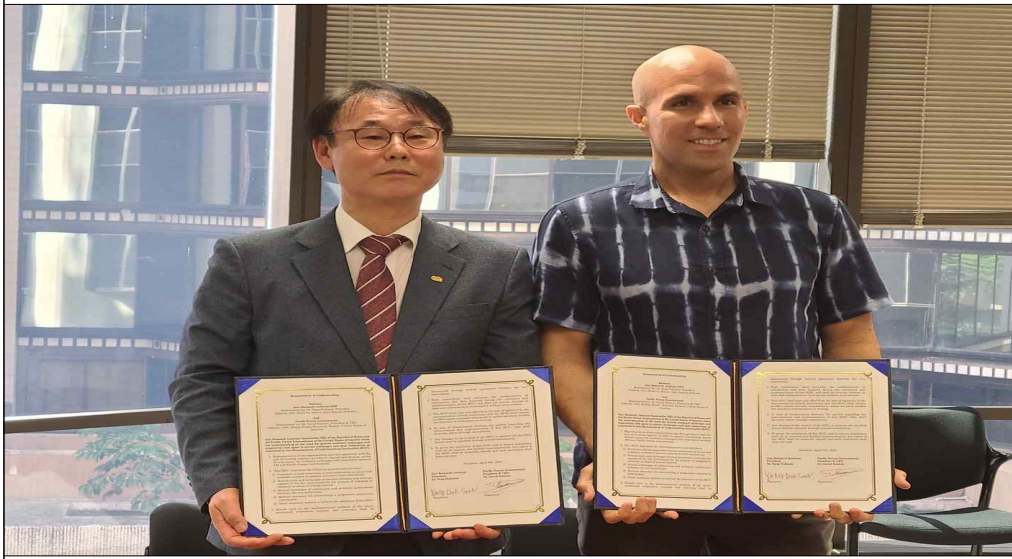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은 본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미국 하와이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Pacific Forum International)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연구 협력 및 정보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함.
-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은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지역 기반의 정책 연구기관이며, 아세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지속적인 민간 대화와 협의를 위해 민간과 미 정부의 후원으로 1975년에 설립됨.
- 현재 환태평양 지역의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아시아의 관점을 활용하고 프로젝트 결과와 권장 사항을 글로벌 지도자, 정부와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은 본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산하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정규 직원 12명, 상주 연구원 집단 약 5~8명을 갖춘 독립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24년 현재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의 원장은 David Santoro이며, 전략적 저지(Strategic Deterrence), 군비 통제(Arms Control), 비확산(Nonproliferation) 분야 전문가이며 최근 강대국의 역할과 미국 동맹, 특히 핵 다극화 시대에서 중국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 Santoro 원장은 호주 맥쿼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 뉴욕대학교 국제협력센터의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년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와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등에서 핵 정책 문제 담당으로 역할을 수행함.
- 특히, Santoro 원장의 저서로는 ‘Slaying the Nuclear Dragon’과 ‘Treating Weapons Proliferation’ 등이 있음.
-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 소속의 로버트 요크 국제협력부장은 하와이대학(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에서 한국역사학(Korean history)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는 ‘한국 근대사(1950~1960년대)의 영어 신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퍼시픽포럼 인터내셔널 근무 이전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편집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의 예산은 보조금, 재단, 정부, 기업 및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약 280만 달러(한화 약 37억 원)의 예산을 보고하였음.
- 해당 기관의 연구발간물은 PacNet Commentary, Issues & Insights, Current Issues 등이 있음.
- PacNet Commentary는 지역 내 시의적절한 사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연구 결과 및 분석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되는 주간 간행물임.
- Issues & Insights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심층 분석으로 구

성되며 퍼시픽 포럼 워크숍 및 컨퍼런스 요약과 관련 논문을 제공하는 월간 발간물임.

- Current Issues는 아세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관계, 특히 한국-미국, 한국-북한, 한국-중국, 한국-일본, 미국-일본, 미국-중국, 미국-인도, 미국-동남아, 중국-동남아, 중국-대만, 중국-러시아, 인도-동아시아 등 국제관계 및 외교 관련 현안을 다루는 발간물임.
-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내용으로는 공동 관심을 두는 문제 및 학술 사안에 대한 공동 연구 또는 학술대회 촉진, 상호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 및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정보 및 관련 출판물의 상호 교환 및 혁신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2024년 5월 29일부터 개최되는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 소속 로버트 요크 국제협력 부장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됨.



<그림 1> 퍼시픽 포럼 mou 체결 사진

2. 하와이대학 동서연구센터(East West Center) 원장 및 전문가 면담

□ 장 소

- 명칭 : East West Center
- 위치 : 1601 East-West Rd, Honolulu, HI

□ 참 석 자 : Suzanne Vares-Lum(President)

Tony Greubel(Diplomatic Fellow)

Kanika Mak-Levy(Associate Dean)

Robert Moore(Scholarship Program Specialist)

Denny Roy(Senior Fellow)

Christina Monroe(Director of Alumni Engagement)

Charles Morrison(Senior Fellow and Former President)

Phanwin Yokying(Research Fellow PhD)

□ 주요내용

-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지역의 하와이 대학 마노아캠퍼스에 위치한 동서연구센터(East West Center)를 방문하여 해당 기관 원장과 각 분야 전문가와의 면담을 시행함.
- 하와이 대학은 하와이주 전역에 10개 캠퍼스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주와 태양, 해양, 대지(씨그랜트, 스페이스그랜트, 썬그랜트, 랜드그랜트) 등 4개 분야의 연방 연구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는 미국의 4개 대학교 중 하나임(오레곤 주립 대학, 코넬 대학,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
- 전체 학생 수는 약 1만 9천여 명으로 학부생 수는 약 1만 4천 명이고 대학원생 수는 약 5천 명임.
- 경영학, 마케팅 관련 전공(21%), 생물학&생명 과학(8%), 사회 과학(8%) 등의 전공이 가장 인기있는 전공이며, 역대 하와이주 상원의원의 44%와 하원의원의 51%가 해당 학교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하와이대학의 동서연구센터는 1960년도에 미 연방의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관련 국제연구소임.
- 센터 건물이 하와이대학 내에 있는 관계로 많은 사람이 대학 부설 연구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하와이대학 시스템이 1907년도에 하와이 주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주립대학인 반면, 동서연구센터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임.
- 해당 기관은 냉전 외교의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미국 국민 및 국가 간의 관계와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 및 연구 기관이며, 현재 하와이 원주민 여성 최초로 미군 소장 출신 수잔 바레스-럼 원장이 2021년 취임하였으며 창립 이래 최초의 여성이자 최초의 하와이 원주민 회장임.
- 바레스-럼 원장은 정보 장교 출신이자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최고위 지도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간부 출신이며, 외교, 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 안보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미 해군의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임.
- 특히, 하와이 방위군 합동참모부장, 부사령관, 합동참모총장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라크 작적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었으며, 제29보병여단 전투단의 합동정보센터를 설립한 경력이 있음.
- 해당 면담에 참석한 찰스 모리슨 고문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동서연구센터의 원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APEC 연구 센터의 미국 국립 컨소시엄의 전 의장이자 연구 고문임.
- “Mr. APEC”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찰스 모리슨 전 원장은 현재 은퇴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개념을

강력하게 옹호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의 관점에서 본 일본, ASEAN, 동아시아를 다루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에서 준비한 APEC 홍보 인형을 찰스 모리슨 전 원장에게 전달함.
- 동서연구센터의 주 업무는 연구, 이스트 웨스트 세미나, 교육 등이며 이를 통한 각종 연구성과물을 포함하는 서적 발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중에서 연구 프로그램은 경제개발, 무역, 에너지, 거버넌스, 정치, 안보, 분쟁 감소, 인구, 건강 및 환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산하기관으로는 태평양 섬 개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동서연구센터는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단기 과정을 마친 졸업생을 위주로 구성된 동문회를 매우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천 명의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제주 출신의 졸업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 내에서의 졸업생 중 33명이 타 주의 주지사가 되었으며, 매년 많은 외교관 또는 상·하원의원을 배출하며 현 주한미국 대사로 있는 필립 골드버그 대사도 동서연구센터의 졸업생이라고 함.
- 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주된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관련 환경문제, 경제발전, 국제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매년 정기·비정기적으로 국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음.
- 센터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동서연구센터와의 교류가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 센터가 설립된 196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천 명 이상의 유학생, 정치가, 고위공무원,

대기업 중역, 연구원이나 신문기자들이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하와이주지사가 동서연구센터의 이사 5명, 외교부에서 이사 5명을 추천하는 것이 지침이며, 외교부에서 추천하는 이사 5명중 1명은 반드시 한국인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제주 출신의 공무원, 기업가, 신문기자들이 하와이 동서연구센터에서 장단기 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KCTV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와 미국 및 지역의 교육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을 함께 제공함.
- 그 외에도 유엔(United Nations)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의 공동연구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 마지막으로 향후 제주연구원과 동서연구센터의 MOU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교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면담에서 바레스-럼 원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제주와 하와이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섬과 평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전달함.



<그림 2> 동서연구소 면담 사진

3. 미국 하와이 정부(State Capitol) 및 주의회 방문

□ 장 소 : 415 S Beretania St., Honolulu, HI

□ 참석자 : Slyvia J. Luke(하와이 부지사)

Sam Kong(하와이주 하원의원)

박혜연 영사(주호놀룰루총영사관)

□ 주요내용

- 미국 하와이주 정부 청사와 주의회를 방문하여 실비아 루크 부지사와 샘 콩 하원의원을 예방하였으며, 해당 일정에는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박혜연 영사가 동행하였음.
- 하와이 정부 청사는 주 정부(State Capitol)와 의회(Senate and House)가 함께 활용하는 건물이며, 1969년에 완공된 블록식 근대 건축물임.
- 건물 중앙에는 천장이 없이 개방되어 있으며, 1층 로비에서 하늘을 직접 볼 수 있는 특이한 건축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하와이의 유명 관광지에도 포함됨.
- 해당 건물은 하와이 국제 건축이라고 불리는 바우하우스 스타일을 적용하여 지어졌으며, 청사 건물은 태평양을 상징하는 반사수영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두 개의 입법 실은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 하와이 제도를 형성한 화산을 상징함.
- 그 외에 건물 곳곳에선 하와이 상징을 살펴볼 수 있으며, 8개의 기둥은 하와이 8개의 섬을, 건물 주위의 물은 태평양, 작은 돌들은 하와이의 크고 작은 섬들을 의미함.
- 청사 1층 로비 앞에는 1870년대 하와이 나병환자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했던 데미안 신부의 동상이 있으며, 건물 뒤편은 하와이의 대표적 명곡 '알로하오에'를 작사 작곡한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의 동상이 있음.

- 25명의 하와이주 상원의원과 51명의 하와이주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하와이주 의회가 이 건물에서 소집되며 해당 의원들의 사무실이 해당 건물에 위치하였고, 건물 최상층인 5층에는 하와이주지사과 부지사의 사무실이 있음.
- 하와이 정부청사 건너편에는 하와이 마지막 군주의 화려한 19세기 주택이며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올라니 궁전이 위치함.
- 1882년 지어진 미국 내 유일한 왕궁으로 하와이 왕조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이며 침실, 무도회장을 비롯해 하와이 최초 수세식 화장실 등이 잘 보존돼 있으며 당시 왕조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하와이 정부청사 인근에는 하와이 주립 아카이브(기록 보관소)가 운영 중이며,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역사 기록부와 기록관리부, 2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군주제부터 현 입법 회기까지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개인 및 조직의 서류, 사진, 지도, 유물, 희귀 서적, 19세기 신문 등의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 하와이 부지사와의 면담에서는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하와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거론됨.
- 한인들의 하와이 최초 이민 관련 기록에서는 1903년 1월 13일 미국 호놀룰루 항구로 도착한 기록과 1905년까지 약 7,000여 명이 넘는 한인이 하와이로 이주하였으며, 이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한인사회를 형성해 나갔다고 알려짐.
- 특히 한인들은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도 조국을 잊지 않고 국권의 회복을 위해 동포들의 보호와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이 이

루어졌다고 알려짐.

- 제주특별자치도는 1986년 11월 25일 미국 하와이주와 자매결연 도시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2021년 제주-하와이 자매결연 35주년 기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으며, 현 하와이 주지사(당시 부지사)의 인사말씀으로 참여하였음.
- 또한 지난 2021년 11월에는 영국에서 COP26 관련 제주지사 권한대행,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과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하와이가 공유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수자원 보존·관리,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문제를 해결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특히, 2023년 상반기에 하와이부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준비가 이루어졌으나, 하와이주 마우이섬의 산불로 인해 방한이 취소되었음.
- 작년(2023년)에 마우이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한 하와이를 향해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사실에 대해 큰 감사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 본 예방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하와이주지사 및 하와이부지사를 향후 제주포럼에 공식적으로 초대할 계획을 밝혔으며, 실비아 루크 부지사는 일정이 허락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방문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또한 이번 예방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하와이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유사하며,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 향후 각 지역의 관광 활성화, 수자원 보존 및 관리, 탄소중립 실천 등의 현실과제 등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힘.
- 또한 매년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참석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매년 10월

개최되는 탐라문화제에 하와이주의 참석을 요청하였음.

- 하와이 주의회 하원의원인 샘 콩은 현재 관광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미국 하와이주는 과거 1987년부터 교류를 시작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지역의 교류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향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현재 하와이주의 의회에서 일본계 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본의 지역 의원과 하와이주의 의원들의 교류가 많다는 사실과 함께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들과의 교류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샘 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하와이를 많이 찾았던 일본 관광객이 최악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 많이 감소하였고, 그 자리를 한국인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있는 사실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함.
- 특히, 현재 하와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1명당 25달러(약 3만 4천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호텔이나 단기 임대 숙소에 체크인하는 관광객에게 정액의 관광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올해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 해당 방안은 관광객에게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소방서 설립과 방화벽 설치 등 재난 예방에 쓰일 것이라고 함.
- 한편, 와이키키 지역의 호텔 또는 단기 임대 숙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리조트 요금(Resort Fee)은 관광세의 일부가 아니며, 해당 금액은 호텔 운영업체 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금액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하와이 부지사 및 하원의원 면담 사진

4.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전문가 간담회 및 진주만(Pearl Harbor) 기념관 현장 답사

□ 장 소 : 590 Moffet St, Joint Base Pearl Harbor-Hickam, HI

□ 참 석 자 : Dr. Jennie Jin(DPAA 실종자 확인 관련 전문가)

신동민 영사(주호놀룰루총영사관)

□ 주요내용

-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근무하는 제니 진 박사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 하와이주의 가장 활성화된 산업은 관광업이며, 관광업 다음으로 활성화된 산업은 국방산업(Military industry)임.
- 특히, 미국 태평양 함대(United States Pacific Fleet)는 미 하와이주 진주만 해군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해군의 구성사령부임.
-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또한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에서 지정된 과거 분쟁에서 전쟁 포로(POW) 또는 작전 중 실종(MIA)으로 나열된 미확인 국방부 직원을 복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국방부 내 기관임.
- DPAA의 역사는 1973년에 시작하였으며, 당시 베트남전을 치르던 미국은 미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부대인 JCRC(Joint Casualty Resolution Center)를 태국에 창설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며 JCRC도 하와이로 본부를 옮겼으며, 미 국방부는 2003년 유해 발굴뿐 아니라 전쟁 포로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쟁포로·실종자확인합동사령부(JPAC)로 확대·개편함.
- 이후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무소(DPMO), 공군생명

과학연구소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및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5년 이들 기관을 통합한 DPAA로 출범함.

- 최근 DPAA는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된 토머스 J 레드게이트 중위의 유해를 2022년 9월 그의 고향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참전 용사 묘지에 안장하였으며, 2022년 8월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한국전 참전 미국 실종자와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 등 관련 세부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음.
- 해당 웹사이트에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총 8천156명 중 단 4명을 제외한 8천152명의 이름과 소속, 실종 보고되거나 유해가 발굴된 지역, 그리고 신원 확인 여부 등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겨 이름별 검색을 통해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7천 500여 명 중 약 5천 200여 명의 유해가 비무장지대(DMZ) 북측이나 북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북한은 1990~1994년 미군 유해 208구를 미국에 인도했고, 1996~2005년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미-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서도 229구의 미군 유해가 수습돼 미국으로 인도됨.
-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인 '펀치볼'에 신원미상으로 묻혔다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현재까지 총 161구로 집계되었으며, '펀치볼'에는 한국전쟁 전후 유해는 수습됐지만,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신원 미상으로 남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840여 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약 4년 전 DPAA는 수십 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펀치볼'에 묻혀 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총 7단계의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시작함.
- 제주와 하와이 해당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 관광명소라는 점에

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 외에 각각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제주의 경우, 1948년 4월 3일 시작된 역사적 아픔이 있다면, 하와이의 경우, 하와이 왕국이 무너지고 원주민의 자결권을 박탈당한 1893년 1월 17일은 원주민들에게 치욕의 순간이다.
-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4.3평화재단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해발굴 관련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유해발굴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발굴된 유해에 대한 신원을 유전자 감식을 통해 밝혀내기 위해 향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이 위치한 진주만 해군기지 인근에는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불시의 공습을 가하여 USS 애리조나를 격파하고, 21개 함대의 미군 전함과 188대의 비행기를 격파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일명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지역에 진주만 국립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음.
- 진주만은 오후우섬 호놀룰루의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19세기 이전까지 풍부하게 나던 진주를 만들어 내는 굴 때문에 불린 이름으로 이곳은 물이 얕아 원래는 항구로 쓰이지 않음.
- 그러나 미군의 방어 기지를 건설하기에 위치가 완벽했고 1887년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독점 권한을 획득하면서 준설 작업이 시작되어 1908년에는 해군기지와 조선소가 건설됨.
- 진주만 공습으로 미군 측의 사망자는 2,403명에 이르렀으며, 미국은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망자 중 거의 절반은 USS 애리조나의 승무원이었으며, 철갑 폭탄에

맞은 탄약고가 폭발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함.

- 또한 해당 지역 인근에는 1940년대 미국 해군(USN)을 위해 건조된 전함이며 현재는 박물관용 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USS 미주리 함을 관람할 수 있음.
- USS 미주리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역에 배치되어 이오지마 전투 및 오키나와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일본 본토에 포격을 가했던 경력이 있음.
- 특히 USS 미주리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일본이 항복선언의 서명을 받았던 곳으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함.



<그림 4> DPAA, 진주만 기념관 현장 답사 사진

5. 하와이 쿠알로아 랜치 및 하나우마만 자연보호구역 등 현장 답사

□ 장 소

- 명칭 : Kualoa Ranch, Hanauma Bay Nature Preserve
- 위치 : 49-560 Kamehameha Hwy, Kaneohe, HI
100 Hanauma Bay Rd, Honolulu, HI

□ 주요내용

- 하와이는 태평양에 있는 섬이고, 1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제도임.
- 130여 개의 섬 중에서 관광이 가능한 섬은 호놀룰루가 있는 오하우섬, 마우이, 빅 아일랜드, 카우아이, 라나이, 몰라키이 등 6개의 섬이 있음.
- 오아후섬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섬은 오아후 국제공항에서 30~50분 거리에 있으면 저마다 놀랄 만한 매력을 갖고 있음.
- 연중 온화한 기후와 태평양의 멋진 자연, 다이내믹한 레저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오아후섬은 많은 관광객에게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는 칭송을 받는 곳임.
- 본 출장을 통해 방문한 오아후섬이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며, 오하우섬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지인 쿠알로아 랜치와 하나우마만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1) 쿠알로아 랜치(Kualoa Ranch)

-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쿠알로아 랜치(Kualoa Ranch)는 고대 하와이 사람들이 오하우섬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긴 곳으로 옛날부터 하와이의 왕족들이 역사 교육을 받고 병법을 수련한 곳이라고 함.
- 이곳은 고대 하와이 오아후 왕국 주권의 열쇠인 신성한 북

(Drum)과 신성한 언덕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짐.

- 1850년에 설립된 쿠알로아 랜치는 개인 소유의 자연보호구역이자 소를 키우는 목장이며, 호놀룰루시에서는 약 39km 떨어져 있음.
- 해당 지역의 소유는 예부터 하와이의 왕족들이었으며, 하와이 제도를 통일한 카메하메하 3세 이후부터 그 소유권이 넘어가기 시작함.
- 특히, 카메하메하 3세 때 하와이 제도에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1850년 미국 본토로부터 게리트 주드 박사가 파견됨.
- 주드 박사는 하와이 주민들을 성심껏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이 섬의 주인이었던 카메하메하 3세와도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친분의 표시로 쿠알로아 랜치의 일부를 주드 박사에게 622에이커 정도를 당시 미 달러 1,300불에 매도함.
- 이후 카메하메하 3세가 후계자를 만들지 못하고 사망하자 쿠알로아 랜치의 나머지 부분들도 경매에 부쳐졌고, 주드 박사의 자손들이 쿠알로아 랜치의 나머지 땅들을 구매하고 지금의 4,000 에이커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함.
- 현재 쿠알로아 랜치는 다양한 영화들의 촬영지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로스트 드라마 시리즈와 쥬라기 월드, 쥬만지 등을 해당 관광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짐.
- 쿠알로아 랜치는 해당 유명 영화 촬영지를 구경할 수 있는 투어 체험을 포함한 승마, ATV, 보트 투어, 정글 투어, 시크릿 아일랜드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체험을 신청하는 관광객들이 많아 최소 한 달 전에는 투어 예약을 마감해야 방문할 수 있음.
- 이곳의 비전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레크리에이션

및 농업 시설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 땅의 자연을 보호하고 이용객들의 후원을 통해 쿠알로아 랜치의 땅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여 미래 세대도 이 땅을 즐기고 탐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 추가로 전통적인 하와이의 가치관, 자연환경에 대한 감사, 하와이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쿠알로아 랜치의 풍부한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임.

(2) 하나우마만 자연보호구역(Hanauma Bay Nature Preserve)

- 민간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인 쿠알로아 랜치와 다르게 하나우마만 자연보호구역은 하와이주의 관광청에서 관리하는 자연보호구역이자 하와이주에 설립된 여러 자연보호구역 중 첫 번째 구역인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응회암 고리 내에 형성된 해양만(Bay)임.
- 하나우마만 자연보호구역은 오아후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이며, 과거 과잉 관광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어 현재는 예약제로만 운영(1일 500명 이하)하고 있음.
- 한때 이 인기 있는 관광지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수용하였으나, 현재 일주일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해당 지역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고 있음.
- 또한 매일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만 대중에게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변 청소를 위해 오후 3시에는 모든 방문객은 해당 해변에서 나와야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음.
- 과거 하나우마 베이 해변 공원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하와이주에 설립된 여러 자연보호 구역 중 첫 번째로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하나우마 베이 자연 보

호 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됨.

- 특히, 해당 구역을 방문하는 모든 인원은 입장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자연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약 9분짜리 동영상을 관람하고 입장해야 함.
- 방문객들은 법에 따라 해양 동물을 학대하거나 해저에 있는 큰 바위처럼 보이는 산호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삼가야 함.
- 해당 지역에는 약 400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누(Honu)로 알려진 푸른바다거북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함.
-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호 백화 현상이 하나우마 베이 지역의 산호초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2014년과 2015에는 해당 지역의 산호초 47% 정도가 백화로 고통받았고, 약 10%의 산호초가 죽은 것으로 발견됨.
-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하나우마 베이는 약 32,000년 전 오아후섬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화산 활동인 호놀룰루 화산 기간에 생성된 것으로 조사됨.
- 하나우마 베이는 카메하메하 왕과 카아후마누 여왕을 포함한 알리이(하와이 귀족)의 휴양지로 사용되었으며, 이곳에서 낚시하고 방문객을 초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하나우마 베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를 해당 해변에 쌓이는 약 187kg의 자외선 차단제로 지정하고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는 산호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와이 섬에서는 아예 해당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금지하고 있음.



<그림 5> 쿠알로아 랜치 및 하나우마만 자연보호구역 현장 답사 사진

- 「제주연구원-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 MOU 체결 및 관계기관 향후 추진 과제 협의」 출장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미국 하와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제주연구원은 향후 지역적 연구와 교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와 국제적 교류 강화를 시사할 수 있음.
- 향후 제주지역의 제주연구원 소속 전문가들과 미국 하와이 현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고 합동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 소속 전문가가 올해 5월 29일부터 추진되는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제주지역을 방문할 계획으로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특히 제주도와 하와이 두 지역 모두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관광 산업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교류 등을 포함한 인적 자원 교류 및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사할 수 있음.
- 또한 제주지역과 미국 하와이 두 지역 모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로써, 자연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자연환경과 기후변화, 지속가능성과 관광 정책 등에 대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에서는 하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Vasey Fellowship, Kelly Fellowship, WSD-Handa Fellowship 등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함께할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퍼시픽 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및 정책 문제에 대한 경험 기회를 제공함.
- 특히, Kelly Fellowship의 경우, 한반도 연구에 집중한 학술적 연구와 전문 경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한국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및 국제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퍼시픽 포럼 인터내셔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동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함.
-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방문한 하와이대학의 동서연구센터 원장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제주와 하와이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섬과 평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두 기관 간의 업무협약(MOU)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해당 센터의 장단기 프로그램 수료자 및 졸업생 위주로 구성된 동문회를 매우 활발하게 운영하는 하와이대학 동서연구센터와의 향후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제주연구원에서는 해당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이루어진 하와이 부지사와 하와이주 하원의원의 면담을 통해 제안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와이 한인 축제' 참석과 하와이주의 '제주 탐라문화제' 참석 등의 향후 계획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당 부서(관광교류국)를 통해 추진

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제주지역과 하와이는 각각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198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로써 향후 서로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사할 수 있음.
- 이러한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 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필요한 서로의 문화에 관한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사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이루어진 하와이 자연보호 구역 및 관광지 현장 답사를 통해 두 지역의 생태계, 종 다양성, 보호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목적을 가진 비교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음.
- 특히, 하와이의 자연 보호 구역을 답사하면서, 해당 구역의 보호 정책과 관리방안을 조사하여 제주지역의 자연보호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보호 구역 운영 모델을 비교하여 더 효과적인 보호 정책과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